

관광·해양레저 복합공간으로 인천 최고 국가어항 건설 강화군, 어유정항 기능개선 설계비 국비 5억 확보



어유정항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관내 유일한 국가어항인 어유정항을 관광과 해양레저 기능을 더한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예산 국비(해양수산부) 5억을 최종 확보했다.

강화군 삼산면에 위치한 어유정항은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5년 국가어항

건설을 완료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어유정항 유지준설, 배후 부지 정리 정돈 등 어유정항의 개발 잠재력 및 지역개발 계획, 레저·관광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어유정항 기능 개선을 위한 설계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그간 어유정항은 인근 조업 어선의 피항 기능 및 해양교통 등 종합 어항 기능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오랜 세월 갯벌이 퇴적되어 어선의 상시 접안이 어려워지는 등 기능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해 조속한 어항구역 재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화군은 어유정항(국가어항) 종합 정비 및 유지준설 예산 확보를 위해 관리청인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 왔다. 군의원, 수협, 지역 어민 등과 합심하여 정부 주요 부처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 끝에 국가어항 관리청의 도움으로 예산(설계비)을 최종 확보했다.

이번 예산 확보는 명실공히 국가어항 건설 후 실로 8년 만에 이룬 큰 성과로 지역 어민들의 숙원 사항을 해결할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국가어항은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 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를 위해 필요한 어항으로서 어업활동의 근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어유정항은 강화군에서 유일한 국가어항이자 가장 큰 어항으로써 우여곡절 끝에 건설 후 8년 만에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우리 어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어업에만 전념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 만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무료’ 강화군이 어르신들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다가오는 2024년 1월부터 인천시 최초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유천호 군수의 민선 8기 공약 사항 중의 하나로 군은 지난 7월부터 지자체 벤치마킹,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례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군은 어르신들을 위한 또 하나의 복지정책을 속히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지원대상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대상자는 내년 1월 2일부터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에서 ‘강화군 어서타시겨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지급대상은 강화군 관내에서 버스를 이용한 요금에 한해 지원되며, 타시군구 승하차시는 지급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분기별 정산을 통해 교통카드 발급 시 등록된 계좌로 사용한 금액 만큼 교통비를 지급하며, 금액은 분기별 최대 4만 5천 원으로 연간 최대 18만 원을 지급한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활발한 사회 활동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인천시 최초
2024년 1월부터 강화군에서

어르신들께 교통비를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70세 이상 강화군 거주 어르신
- 지원금액** 연간 최대 18만원 (분기별 4만5천원)
- 지원내용** 강화군 관내 버스 이용 요금 지원
※ 정기표, 교통카드, 타시군구(타시/타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기준** 매분기 말일,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 후 정산 지급
- 지원방법** 승전 후 선불 교통카드 이용 → 분기별 실적통계 개인별 계좌 입금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신분증, 통장 지참)
※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방문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2024. 1. 2. (화) - 계속 (※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카드신청·수령 (읍·면사무소)
- 카드 선충전 (민박업)
- 사용
- 교통비 지급 (메이백)

강화군 | 100-9500 강화읍 111-1 (전화) 7-0520, 0525, 0526, 0527, 0528, 0529, 0530, 0531, 0532, 0533, 0534, 0535, 0536, 0537, 0538, 0539, 0540, 0541, 0542, 0543, 0544, 0545, 0546, 0547, 0548, 0549, 0550, 0551, 0552, 0553, 0554, 0555, 0556, 0557, 0558, 0559, 0560, 0561, 0562, 0563, 0564, 0565, 0566, 0567, 0568, 0569, 0570, 0571, 0572, 0573, 0574, 0575, 0576, 0577, 0578, 0579, 0580, 0581, 0582, 0583, 0584, 0585, 0586, 0587, 0588, 0589, 0590, 0591, 0592, 0593, 0594, 0595, 0596, 0597, 0598, 0599, 0600

간담회를 통한 교류 협약 추진 및 태국 문화 탐방

강화군, 태국 싹끄렛군 방문...교육 및 문화교류 사업 강화



태국 싹끄렛군 방문 민간교류 간담회 교류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교류 대상 도시인 태국의 싹끄렛군 초청으로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4박 6일간 교육 및 문화교류에 대한 사전 협의를 위해 태국을 방문했다.

유천호 군수를 단장으로 강화군 대표단 8명은 싹끄렛군청에서 위치이 반사닥 군수 등 싹끄렛군 공무원들과 청소년 교육 및 문화교류, 민간 문화교류

협력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싹끄렛군은 특색 있는 태국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 공연도 선보였다. 또한, 학교 시찰을 통한 태국 교육 시스템 소개, 왕족 문화 소개 등 교육 및 문화교류를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을 보여줬다.

이들은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 교육과 문화 부문의 교류를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약도 함께 추진

키로 약속했다.

위치이 반사닥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초청에 응해준 강화군수에게 감사를 표하며, 내년에는 위치이 반사닥 군수가 직접 답방할 것을 약속하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운데 간담회가 마무리됐다.

이 외에도 군은 한국문화원을 방문해 최근 불거진 태국인 한국 입국 거부 사태 등에 대한 태국 내 상황과 한류 분위기에 대해서도 청취하는 등 태국과의 교류 시 검토할 사항에 대해 조언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농산물 시장을 방문해 태국의 농산물 판매 시스템을 살펴보고, 강화군과 유사한 방콕 시내에서 약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기둥 없는 전시관인 임팩트 컨벤션 센터를 방문해 대형 전시시설의 효과도 확인하는 등 모든 일정을 알차게 소화했다.

유천호 군수는 “태국 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교육 및 문화교류를 추진해 관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관광객 유치 등 우리 군정에 반영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

26일 취항식 갖고 본격 운항, 친환경 행정선으로 건조 강화군, 행정선 ‘서도 509호’ 첫 항해 시작!



행정선 서도509호 취항식



행정선 서도509호 취항식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6일, 서도면 느리선착장에서 신규 행정선 ‘서도 509호’가 취항식을 갖고 첫 항해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서도 509호는 총 33t 규모로, 길이 19.43m 알루미늄 늪합금으로 건조됐다. 승선 인원은 15명으로, 디젤 엔진 2대, 워터제트 추진기 2대, 미세먼지 저감 장치 2대를 탑재해 25노트(시속 44km)의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는 친환경 행정선이다.

이날 취항식에는 유천호 군수, 박승한 군 의장, 박용철 시의원을 비롯해 지역주민 등 여러 내빈이 참석했고, 서도 509호의 첫 출항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동안 기존 관공선인 강화 509호는 건조된 지 20년이 지나 노후가 심해 매년 많은 수리비가 지출됐고, 안전성 문제도 대두된 바 있다.

이에 군은 안정적인 섬 지역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업비 31억 원을 투입해 기존 선박을 대체

하는 행정선을 건조하게 된 것이다.

강화군, 태국 싹끄렛군 방문...교육 및 문화교류 사업 강화 (2)유천호 군수는 “행정선 서도 509호 건조는 서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응급환자의 신속한 수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도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가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강화군, 고향사랑기부제, 올 연말까지

21일 기준 모금액 9,100만 원, 목표액 대비 182% 초과 1억 원 달성 예상

강화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품

종류	종류별 설명	종류	종류별 설명
장미차량	쌀, 고사리차, 견과, 참깨	부인	김, 무, 호박, 감자부각
속노랑고구마	속노랑고구마, 속노랑고구마김치	하루	당면, 순무, 복숭아
삼계탕	삼계탕, 닭이 삶은 계	농산물	황새농산물
계란	농산물, 계란	전통음식	전통음식
신선식품	신선식품, 농산물, 농산물	전통음식	전통음식
신선식품	신선식품, 농산물, 농산물	전통음식	전통음식
신선식품	신선식품, 농산물, 농산물	전통음식	전통음식
신선식품	신선식품, 농산물, 농산물	전통음식	전통음식
신선식품	신선식품, 농산물, 농산물	전통음식	전통음식
신선식품	신선식품, 농산물, 농산물	전통음식	전통음식
신선식품	신선식품, 농산물, 농산물	전통음식	전통음식

기부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화군이 아닌 누구나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 16.5%) 답례품 제공(기부액의 30%)

기부방법 온 라인 : 고향사랑e음 오프라인 : NH농협은행

강화군 재무과 ☎ 032-930-3297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주년을 앞두고 기부금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모금액은 9천100만 원으로, 총 1,242명의 기부자가 동참했다고 전했다. 올해 강화군의 기부금 목표액은 5천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182%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게다가 연말정산을 앞두고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직장인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어 올 연말까지 1억 원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부 연령층은 30~50대가 67%를 차지했으며, 금액별로는 총기부자의 78%가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인기가 많은 답례품은 강화섬 쌀이었고, 암소 한우 불고기 세트, 순무 김치, 강화 약썩는 찜질팩이 그 뒤를 이었다.

유천호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부금을 강화군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세액공제를, 10만 원을 초과하면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까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를 희망하는 분들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전국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을 방문해 기부할 수 있으며, 강화섬 쌀, 순무 김치, 홍삼 제품, 특산 차, 부각, 누룽지, 약썩 제품, 한우, 막걸리, 장아찌, 동물복지 유정란, 고구마 빵, 속노랑 고구마, 소창 제품, 잡곡 세트, 요구르트, 화문석 및 소품 등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강화군, 관내 507개 소농가 이동제한 조치 해제

럼피스킨 발생 59일 만에 비발생 방역 해제 조건 충족



소_럼피스킨 사투끝내다



소_럼피스킨 사투끝내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소 럼피스킨(LSD) 발생과 관련해 관내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지난 21일 오전 9시 자로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군은 럼피스킨 첫 발생일인 지난 10월 24일, 방역대 내 농가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고, 백신접종 후 1개월이 지난 최근 4주까지 방역대 내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했지만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해제 대상은 관내 6개 방역대에 있는 507개 소농가로, 이번 조치에 따라

방역대 내 소 사육 농가, 축산종사자,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가 모두 풀리게 됐으며, 이에 따라 폐쇄된 가축시장도 재개된다.

단, 발생 농가는 아직 재입식 절차가 남아 있다. 30일 동안 소독·세척을 철저히 한 후, 군과 검역본부의 점검 및 환경 검사 후 재입식이 가능하다.

앞서 군은 관내 9개 농가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해 1,072두를 살처분했으며, 499개 농가 2만여 두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군 보건소, 인천

강화농진축협의 협조로 럼피스킨 매개충 집중 방제를 실시했고, 지난달 3일 이후 럼피스킨 비발생으로 방역대 해제 조건이 충족됐다.

지난 18일에는 1차로 방역대를 해제했고, 이후 순차적으로 보호지역(500m~3km)과 관리지역(500m 이하) 내 266개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1일 전체 방역대를 해제했다.

또한, 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 태어난 송아지 90여 두에 대해 백신접

종을 완료했고, 내년에도 럼피스킨 추가 유입 차단을 위해 방제단을 운영해 모기·파리 등 매개충 제거에 집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소농가는 럼피스킨 재발 방지를 위해 선원면에 있는 상시 거점 소독시설을 이용해 출입 차량 소독을 철저히 하고, 외부인 출입 금지, 소독 및 정화조 주변 해충방제 등 기본 방역 수칙도 잘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화군의회,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 촉구 결의



강화군의회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

인천광역시 강화군의회(의장 박승한)는 지난 1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강화군의 경우, 2022년부터 현재까지 34명의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했으며, 그중 91%인 31명이 7~9급 하위직 공무원이었다.

결의안에는 '이러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자발적 퇴직은 강화군의 행정력과 군민에게 제공되는 행

정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그 피해는 오롯이 강화군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오현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화읍·하점면·양사면·송해면·교동면)이 대표 발의한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 촉구 결의안'은 낮은 보수 대비 과도하고, 강도 높은 업무량에 비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는 적은 보수 수준을 지적하며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 개선을 촉구했다.

오현식 의원은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한 결의문에서 △6급 이하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물가 상승률 반영을 의무화한 보수체계 개편 촉구와 △공무원 보수 위원회 규정을 구속력 있는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과 △보수뿐만이 아닌 근본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내년 1월 본격 운영...기획전 할인쿠폰,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지원 강화군, 우체국 쇼핑몰 내 전용 브랜드관 개설



강화군(군수 유전호)이 우체국 쇼핑몰 내 '강화군 브랜드관'을 개설해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에 나섰다.

강화군은 전용 브랜드관 개설을 위해 지난 8일 우체국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현재 우체국 쇼핑몰에는 강화군 39개 업체, 316개 상품이 개별 입점해

있으나, 내년 1월부터는 전용 브랜드관에서 만날 수 있다. 군은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화군 브랜드관'은 지역 내 주 소지를 두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입점 가능하며, 입점 시 할인쿠폰을 통한 각종 기획전 행사와 제휴 쇼핑몰 연계 판촉,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강화군 브랜드관 입점을 위해서는 먼저 우체국 쇼핑몰에 입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입점 신청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 우편사업 진흥원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이 많은데, 이번 온라인 판로 지원을 통해 매출을 증대하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최백하 기자



함께하는 행복한 영농, 1월4일 ~ 11일, 6일간 진행 강화군농업기술센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과



강화군농업기술센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농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24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군 단위)'을 오는 1월 4일부터 11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다고 전했다.

교육 내용은 관내 농업인이 많이 재배하는 작물인 고구마·수도작·고추·시

설 오이·포도 등 5개 작목의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농업인이 농업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 8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새해 영농계획을 수

립해 새롭게 연구·개발된 신기술 교육으로 변화된 농업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나아가 농업 현장 애로 기술, 경영, 유통 등 핵심 실용화 기술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일정은 1월 4일(목)에는 고구마(북부), 5일(금) 고구마(남부), 8일(월) 수도작, 9일(화) 고추, 10일(수) 시설 오이, 11일(목) 포도로 진행되며, 분야별 교육 시간은 교과목 특성에 따라 1일 4시간 이내로 편성된다.

고구마 교육은 북부와 남부로 분리해 총 2회 진행되며, 북부지역은 강화읍·선원면·불은면·내가면·하점면·양사면·송해면·교동면·삼산면·서도면, 남부지역은 길상면·화도면·양도면이 해당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당일 오전 9시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 접수할 수 있다.

문의 ▶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 032) 930-4113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및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강화군, 후계농업인력 육성사업 신청 접수



강화군 후계농업인력 육성사업 신청 접수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미래 농업을 이끌 젊고 유능한 농업인 육성을 위한 2024년「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 사업」을 접수 중이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 사업’은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독립경영 10년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접수 마감은 2024년 1월 31일이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된 사업시행지침을 확인후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의 경우 작년과 접수 방법이 동일하나,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 사업은 기존 방문 접수에서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인터넷 신청으로 변경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의 ▶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 930-4112

감염 취약계층 제외 검사필요 시 본인 비용 전액 부담 강화군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종료



강화군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종료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가 지난 15일, 코로나19 위기 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해 위기 단계를 ‘경계’로 유지함에 따른 것이다.

선별진료소 운영은 종료되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응급실·

중환자실 입원환자 및 보호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및 보호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무료 PCR 검사가 가능하다.

이외에 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유행하고 있는 만큼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 씻기와 개인위생 수칙, 주기적 환기 등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최백하 기자

강화의 밤, 아름다운 조명들로 연말분위기 몰신!



경관조명 고려궁지



경관조명 용흥공원



경관조명(그늘막트리)



경관조명(수협 사거리 그늘막 트리)

2023 송년 '제야의 종'

'2023 송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 개최 안내

군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2023 송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 개최 안내

- 일 시 : 2023. 12. 31.(일) 22:30 ~ 2024. 1. 1.(월) 00:30
- 장 소 : 강화 고려궁지 일원
- 행사내용 : 새해맞이 타종, 대북 퍼포먼스, 체험부스 운영 등

강화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도시팀 ☎ 930-3578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 '2023년 평가보고회 및 송년대회' 개최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 2023 평가보고회 및 송년대회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회장 임인관)는 27일 중앙웨딩홀 뷔페에서 '2023년 평가보고회 및 송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임인관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 회장, 박승한 군의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다 함께 사는 공동체 실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위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식전 공연과 추진성과 영상 보고를 시작으로 유공 위원 포상, 축사, 저녁 만찬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1년간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가 진행한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임인관 회장은 “올 한 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 회원들은 진실과 질서, 화합의 취지에 맞게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분들의 헌신에 큰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가 힘을 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길상 어린이 합창단 창단식 개최, 아이들의 문화적 재능을 펼칠수 있길 응원!



길상 어린이 합창단, 역사적인 발걸음 시작



길상 어린이 합창단, 역사적인 발걸음 시작

길상 어린이 합창단(단장 염금숙)이 지난 12일, 길상면 주민복합센터 3층 다목적홀에서 '길상 어린이 합창단 창단식'을 개최했다.

길상 어린이 합창단은 길사모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회원들과 회의를 통해 조성됐다.

길사모 대표인 염금숙 회장을 단장으로 지휘자 김종우, 반주자 황예은, 길상 초등학교 학생 19명의 단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창단식은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흥식 길사모(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아 합창단 경과보고, 합창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합창단은 지난 5월 19일 창단 준비위원회를 발족해 7월 단원 오디션을 진행했다. 이어 8월부터 연습을 시작해 9월에는 그리운 금강산 가곡제에도 참가한 바 있다.

염금숙 단장은 “오늘을 시작으로 길상 어린이 합창단이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으려 한다”며, “길상 어린이 합창단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승섭 행정복지국장은 축사를 통해 “강화군은 인구 소멸 우려 지역으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강화’를 만들고자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아이들이 문화적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약속 강화군 경영자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



경영자협의회 이취임식(취임 이정태)

강화군 경영자협의회는 22일 명진 뷔페에서 강화군 경영자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유천호 군수, 박승한 군 의장, 시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이

끌어 온 한광열 회장에 대한 공로패 증정, 이임사, 이정태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이날 취임하는 이정태 회장은 강화군 경영자협의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면서 회원사 간 전문지식과 정보를 원활히 교류하는 등 평소 협의회에서 높은 평판을 받아왔다.

또한,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 지부 회장, 인천광역시 체육회 이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고, 화도면 소재 총 55객실 규모의 라르고빌 리조트 CEO로서 많은 외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정태 회장은 “협의회 발전과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간 축적된 경영노하우로 강화군 지역경제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천호 군수는 축사를 통해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지역경제 리더인 강화군 경영자협의회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운데, 적극적인 기업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며 군은 기업의 경영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이장협의회, 송년의 밤으로 화합의 시간 마련



이장단 송년의 밤

강화군 이장협의회(회장 김상배)가 22일 명진뷔페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3년 강화군 이장협의회 송년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유천호 군수, 박승한 군 의장, 박용철 시의원, 군의원, 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그동안 행정의 보조역할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한 이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개회식, 만찬, 화합의 장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화합의 장인 노래자랑에서는 춤과 노래가 어우러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김상배 이장협의회장은 “이장님들께서 1년 동안 굵은일을 도맡아 앞장서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이장들이 솔선수범해서 강화군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유천호 군수는 “올 한 해 지역 행사와 행정업무 지원에 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앞장서주시는 모든 이장님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주민이 화합하고 더불어 사는 강화군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자유총연맹 강화군지회, 2023년 사업 실적 보고회 개최



한국자유총연맹 강화군지회 사업실적 보고회

한국자유총연맹 강화군지회(회장 박봉식)는 27일 명진뷔페에서 ‘2023년 사업 실적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내빈과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성과 보고, 대회사 및 축사, 우수회원 표창,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박봉식 한국자유총연맹 강화군지회장은 “한 해 동안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지역사회봉사를 위해 애써 주신 모든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는 한국자유총연맹 강화군지회가 되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군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선 회원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며, “오늘날의 자유와 번영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강화군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 강화군지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캠페인, 6.25전쟁 음식 시식회,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자유 수호 합동위령제 등을 통해 시민의식 향상과 안보의식 확립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 최벽하 기자

인천시, 세 번째 소래가치찾기 토론회서 소래의 가치와 미래 알려 인천시,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기본구상 공유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대시민 토론회

인천광역시시는 12월 22일(금)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 27일과 12월 1일 각각 열린 1·2차 소래가치찾기 토론회에 이은 제3차 토론회로, '기본구상 완성을 통한 소래의 미래 엿보기'를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 소래의 가치와 미래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알려 나가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객정인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센터장은 인천시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이달까지 추진해 온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최종 보고하고, 1, 2차 소래가치찾기의 내용을 종합해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의 가치와 추진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기본구상' 용역에서는 ▲국가도시공원 지정하고 조성해야 한다는 점 ▲소래의 갯벌, 염전, 문화, 예술의 체험공원으로서 다섯 개의 파크플랫폼을 구축하는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수립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기 위한 공원페스타 개최, ▲국제설계공모를 통한 세계적 전문가 초빙 등 향후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는 등의 제안이 담겼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배정환 서울대 교수는 혼종의 경관으로서 소래의 가치

에 대한 주제로 소래의 미래에 대해 발표했는데, 기후위기와 갯벌 구조 변화로 대표되는 소래염전, 갯벌, 습지, 포구 등의 경계에 놓여있는 경관에 대해 어떤 내용으로 가치를 부각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국가도시공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봉호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아연 서울시립대 교수,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최도수 인천시 도시균형국장, 이동흡 부산시 파크시티추진단장이 발제 내용에 대한 열띤 토론과 국가도시공원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했다.

이어 인천시는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추진위원회' 민간위원 2명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공원페스타, 시민참여추진, 공원조성추진 3개 분야로 구성되는데, 공원페스타 분야 추진단장에 배정환 서울대 교수, 시민참여 분야 추진단장에 한봉호 서울시립대 교수가 위촉됐으며, 공원조성 분야 추진단장은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이 맡게 된다.

위원회는 대시민 토론회에서 논의한 사항과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할 인천공원페스타, 국제설계공모 등을 전문가 및 시민과 함께 준비할 계획이다.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인천시에서는 도심 속 천혜의 자연과 다양한 역사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소래 일원을 국가적 가치가 있는 장소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조성해 나가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장소, 생태문화예술의 창조적 장소, 자연과 개발의 균형을 이루는 장소로서 시정 핵심가치를 부여하여 수도권 대표 세계적 국가도시공원으로 소래일원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래 일원은 수도권에서 자연해안선을 가진 유일한 하구 구조로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등 16종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소금창고 등 염전문화를 보유한 공간으로 자연경관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곳이다.

인천시는 내년 하반기 여의도 면적(2.9km²)의 약 2.3배 규모인 6.65km²를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신청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정이 확정되면 수도권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의 국가도시공원이 된다.

- 서정진 기자

12월 26일부로 계양구 굴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원 8.40km² 해제 인천시, 계양 테크노밸리와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 및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오는 12월 26일부로 해제된다.

인천광역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굴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원 8.40km², 4,502필지가 12월 26일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로 20.78km²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96필지는 실거주 등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계양 테크노밸리는 보상 완료 및 착공으로 인근지역은 지가 안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면서 "이번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정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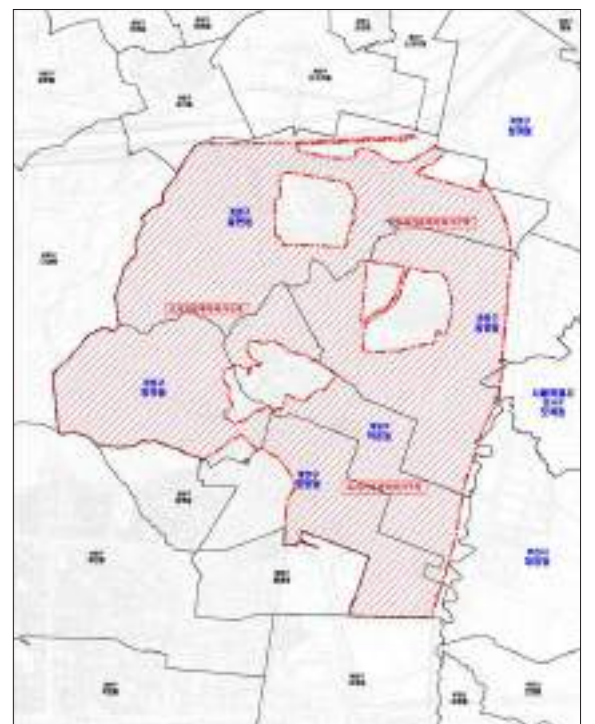
검암역세권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기고

이경수

강화의 진·보와 소속 돈대의 변화



무태돈대

강화에 진·보가 설치되기 시작한 것은 효종 때입니다. 해안 경계부대인 진과 보에 일종의 초소인 돈대가 들어서게 되는 것은 숙종 때입니다. 각 진·보는 돈대 몇 개씩을 맡아 운영하게 됩니다.

강화 해안에 설치한 돈대는 다해서 54개입니다. 오랜 기간 추가로 설치되면서 54개에 이른 것이고, 중간에 폐지된 돈대들도 있어서 항상 54개가 운영된 것은 아닙니다.

1679년(숙종 5)에 병조판서 김석주의 주도로 월곶돈대 등 48개 돈대가 설치됐습니다. 승군(僧軍) 8,900명이 동원되어 돈대의 몸체 부분을 쌓았고, 승군과 교대해 들어온 어영군 4,262명이 여장을 쌓고 마무리했습니다. 돈대 쌓는데 약 80일 정도 걸렸습

니다. 채석 기간까지 포함하면 대략 6개월이 소요된 공사였습니다.

이후 숙종 대에 검암돈대(선수돈대)·빙현돈대·철북돈대·초루돈대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총 54개 돈대 가운데 52개가 숙종 때 세워진 겁니다. 여기에 영조 때 하나, 고종 때 하나가 더해져서 54개 돈대가 되었습니다. 1726년(영조 2)에 작성돈대가 설치되고, 1867년(고종 4)쯤에 용두돈대가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표를 통해 진·보와 돈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강도지》와 《강화부지》의 진·보 소속 돈대 현황을 비교한 것입니다.

월곶진, 제물진, 용진진, 초지진은 변화가 없습니

다. 선원면에 있던 화도보가 폐지되면서 화도보 소속인 화도돈대와 오두돈대가 광성보에 속하게 됐네요. 광성보에 속했던 손돌목돈대는 덕진진 소속으로 바뀌었고요. 신미양요 때 미군과 결전을 치른 광성보 손돌목돈대가 사실은 덕진진 소속이었습니다.

선두보가 새로 설립되면서 택지돈대장이 관리하던 택지돈대, 동검북돈대, 후애돈대를 맡게 됩니다. 장곶보는 갈곶돈대장이 맡았던 미곶돈대(미루지돈대)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새로 12진·보에 편입된 정포보는 송강돈대장과 망양돈대장이 관리하던 건평돈대, 망양돈대, 삼암돈대, 석각돈대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인화보는 계룡돈대장 소속인 무태돈대와 1726년(영조 2)에 추가 설립된 작성돈대를 받았습니다. 철곶보는 불장돈대장이 관리하던 불장돈대, 의두돈대, 천진돈대를 그대로 받고 또 1719년(숙종 45)에 세운 철북돈대와 1720년(숙종 46)에 세운 초루돈대까지 맡게 됩니다. 승천보는 기존 소속 돈대에 1718년(숙종 44)에 세운 빙현돈대를 더해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강화부지》에 따르면, 진·보가 아닌 영문에 소속된 돈대들이 있습니다. 분오리, 송곶, 송강, 굴암, 계룡, 망월돈대입니다. 영문, 그러니까 진무영에 직속된 돈대들입니다. 흔히 설명하기를, 이들 돈대가 워낙 중요해서 진·보에 소속시키지 않고 진무영에서 직접 관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설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 중시한 돈대들은 강화도 동쪽 해안에 있었어요. 분오리, 송곶, 송강, 굴암, 계룡, 망월돈대는 외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남쪽 해안과 서쪽 해안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진·보에 소속되지 않고 돈장들이 관리하던 곳입니다. 아마도 인근 진·보가 거리 문

진·보·돈대의 변화

《강도지》, 1696(숙종 22)		《강화부지》, 1783(정조 7)	
진보	소속돈대	진보	소속돈대
1 월곶진	적북, 휴암, 월곶, 옥포	월곶진	적북, 휴암, 월곶, 옥창(옥포)
2 제물진	망해, 제승, 염주, 갑곶	제물진	망해, 제승, 염주, 갑곶
3 용진진	가리산, 좌강, 용당	용진진	가리산, 좌강, 용당
4 광성보	광성, 손돌항	광성보	화도, 오두, 광성
5 덕진진	덕진	덕진진	손석항(손돌목), 덕진
6 초지진	초지, 장자평, 섬암	초지진	초지, 장자평, 섬암
7 화도보	화도, 오두정	선두보	택지, 동검북(소검도), 후애
8 장곶보	북일, 장곶, 검암	장곶보	미곶(미루지), 북일곶, 장곶, 검암(선수)
9		정포보	건평, 망양, 삼암, 석각
10 인화보	인화, 광암, 구등곶	인화보	무태, 인화, 광암, 구등곶, 작성
11		철곶보	초루, 불장, 의두, 철북, 천진
12 승천보	석우, 소우, 숙룡, 낙성	승천보	석우, 빙현, 소우, 숙룡, 낙성
택지돈장 : 택지, 소검도, 후애, 양암 갈곶돈장 : 갈곶, 분오리, 송곶, 미곶 송강돈장 : 송강, 굴암, 건평 망양돈장 : 망양, 삼삼암, 석각 계룡돈장 : 계룡, 망월, 무태 불장돈장 : 불장, 의두, 천진		영문소속	분오리, 송곶, 송강, 굴암, 계룡, 망월
		비고	갈곶돈대, 양암돈대 폐지 1718년(숙종 44)



제 등을 들어 이들 돈대를 맡으려고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영문 소속으로 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속 돈대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관리 부담이 커지는 것이니까요.

1718년(숙종 44)에 갈곶돈대와 양암돈대를 폐지했다고 했습니다. 힘들게 만들어놓고 왜 폐지했는지 그 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강화유수 권성이 임금에게 글로 아뢰니까.

선두포 좌우에 갈곶돈과 양암돈이 있는데, 독을 쌓아 개간하면서 두 돈대 주변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진흙뻘이 드넓게 형성되어 큰 배의 출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적선의 상륙이 불가능하게 되니 두 돈대의 필요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대로 유지해야 할지 혁파해야 할지 중신(重臣)을 보내셔서 살펴보고 결정하게 해주소서. 《숙종실록》

두 돈대가 폐지된 것은 선두포 간척의 결과입니다.

민진원 유수 주도로 선두포에 독을 쌓은 것은 1707년(숙종 33)입니다. 바다를 막으면서 물 흐름이 바뀌었고 그래서 갈곶돈대와 양암돈대 앞으로는 큰 배가 들어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적선이 상륙할 가능성이 없는 곳에 굳이 돈대를 운영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숙종은 유수의 뜻에 따라 비변사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비변사에서 대답하길, "양암과 갈곶을 혁파하는 문제는 이미 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입니다. 따로 중신을 파견하여 간심(看審, 자세히 살핌)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폐지하지는 얘기입니다. 숙종이 따랐습니다. 결국, 설치된 지 40년만인 1718년(숙종 44)에 와서 두 돈대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입니다.

민진원 유수가 선두포 축언이 왜 필요한지 숙종에게 아뢰면서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선두포의 양쪽 가에 양암과 갈곶 두 돈대가 있는데 서로의 거리가 3백여 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포구의 물이 중간에서 막혀 서둘러서 왕래하려면 20리의 원거리가 되니 만약 그 제방을 쌓으면 20리를 3백 발로 줄일 수가 있어 방수하는 도리에도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비변사등록》

독을 쌓으면 양암돈대와 갈곶돈대 군사들이 서로 쉽게 왕래하고 연락해서 방수에도 편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독 쌓으면, 두 돈대가 필요 없게 될 거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개발은 예상하지 못한 자연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때로 인간 삶에 커다란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폐지했다고 해서 돈대 시설을 바로 없앤 것은 아닐 겁니다. 지키는 군사도 무기도 없는 상태로 방치되면서 지금에 이르렀을 겁니다. 현재 두 돈대의 터가 남아 있습니다. 돈대를 이루고 있던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돌들이 여전히 돈대 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된 돈대가 양암·갈곶, 돌로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록에는 보이지 않으나 옛 지도를 통해 추정 가능합니다. 돈대 현황을 상세히 그린 <강화부전도> (1872)는 폐지된 돈대를 아예 표기하지 않았는데도, 양암·갈곶돈대와 함께 빙현돈대도 그려 넣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빙현돈대가 폐지됐음을 알려줍니다.

<강화부전도> 조금 뒤에 제작된 <강도부지도> (1875~1894, 서울대도서관)는 빙현돈대에 '今廢(금폐, 지금은 폐지)'라고 적었습니다. 더해서 택지돈대와 무태돈대에도 '今廢'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빙현돈대가 폐지되고 몇 년 뒤에 택지돈대와 무태돈대까지 폐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도 폐지된 돈대는 양암돈대, 갈곶돈대, 빙현돈대, 택지돈대, 무태돈대, 이렇게 다섯이 되는 셈입니다.

강화 본섬 밖에 있는 유일한 돈대, 동검북돈대. 이 돈대는 좀 애매합니다. 언젠가 돈대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만, 이후 일종의 봉수대로 쓰였습니다. 폐지라고 할 수도 있겠고, 용도 변경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칼럼

위대한 패배자



김학준

전) 서울신문 기자

지구는 좌절의 별이다. 불운이 겹치고, 운명에 활취고, 로또 복권은 번번이 비껴가고, 이 사람에 속고 저 사람에 넘어가는 것이 우리네 삶이다. ‘종(種)’으로서의 인간은 진화의 무수한 굴곡을 넘어 온 승자지만, 개인으로서 인간은 대개 실패하고 좌절된 사람에 가깝다. 물론 승리자들도 있다. 하지만 사회 전체로 따지면 그 비율은 미미할뿐 아니라, 그마저도 경쟁이 치열한 현대사회에서는 줄어들었다.

패자와 승자의 운명이 갈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고 질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세상은 승자만을 찬양하고 기억하며 보상해주는 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소수의 승자들이 돈이나 권력, 명예, 역사적 평가까지 독차지한다. 반면에 패자를 기억하는 것조차 불편해 하고, 심지어 죄인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승자 못지 않고, 아니 오히려 더 훌륭한 패배자들이 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 그렇다고 역사에 그들의 발자취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희미할 뿐이다. 그들이 남기고 간 흔적을 들여다본다.

독일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렌츠는 괴테보다 더한 천재였음에도 괴테에게 견제를 당해 생전에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 당시 괴테는 문화권력의 핵심이었는데 그의 말 한마디는 진리나 마찬가지로 여겨졌다. 괴테는 렌츠를 단순히 깎아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악의에 찬 비방까지 서슴지 않았다. 독일의 가장 위대한 문학가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괴테는 오만한 성격에다 경쟁자로 생각되는 젊은 천재 작가들의 싹을 잘라버릴 정도로 야비한 사람이었다.

렌츠는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고 자신의 작품을 선전하는 기술이 없었다. 심지어 자신이 쓴 책에 이름을 올리는 것조차 거부한 적이 있다. 이 점에서 자기 선전에 능하고 자신의 명성을 기발하게 관리하는 괴테와 대비됐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렌츠는 1781년 러시아 모스크바로 떠났고, 일정한 거처도 없이 거리를 방황하다가 1792년 빈민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다. 렌츠의 문학은 오랫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다 1828년 루트비히티크에 의해 3권짜리 ‘렌츠 전집’이 발간되었다. 렌츠가 쓴 시구 중에 이런 것이 있다. ‘과과하는 삶이여, 너울너울 날아라’. 대부분의 다른 시처럼 이 시에도 쓴 날짜는 보이지 않는다. 렌츠처럼 한 점 희망없이 철저히 무너진 사람도 드물 것이다.

미국의 앨 고어(민주당)는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상 이기고도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 총득표에서 조지 부시(공화당)보다 33만8000표 앞섰지만 각 주의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특이한 미국 대통령 선거방식 때문에 패자가 됐다. 또 검표기 오류 문제가 제기돼 재검표가 진행됐지만, 연방대법원 판결(대법관 9인 중 5명이 재검표 중단 찬성)에 의해 재검표마저 중단됐다. 미국의 유명한 법학자

더쇼비츠는 “5명의 판사는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원칙을 어겼으며, 자신들의 지위를 당파적인 판결을 내리는 데 악용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법학과 교수는 545명은 뉴욕타임스에 다음과 같은 성명을 내 이보다 분명하게 대법관들을 비난했다. “5명의 판사가 재검표를 중지시켰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법관이 아니라 조지 부시의 지지자였다.”

이로 인해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아프리카 언론들조차 비꼬았지만, 앨 고어는 “대법원 판결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국민 분열을 막고 민주주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일갈해야 하지 않았을까. “국민 여러분, 나는 대법관들의 당파적 결정과 검표기 오류에 의해 당선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투표합시다. 이번 선거는 무효입니다.” 하지만 이는 영화나 소설에서 나올 법한 얘기다. 생애 최고의 목표를 쟁취한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걸 기대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그것이 보통 자리인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 아닌가.

영국 수학자 앨런 튜링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암호기를 최초로 해독해 연합군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전쟁 당시 영국 수상이었고, 전후에도 20여간 영국을 이끌었던 처칠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 튜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의 전쟁 회고록에도 담지 않았다. 영국 사람들은 처칠이 있었기에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다고 믿는데, 이러한 평판에 튜링이 누가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그랬다는 추측이 있다. 튜링은 영국 최고의 백과사전인 브리태니커 1986년판에서 야 비로소 이름이 처음 등재됐다.

튜링은 또 현대 컴퓨터의 토대를 만들었다. 그는 1948년 영국 국립물리연구소에서 컴퓨터 개발 프로젝트 팀장을 맡아 미국이 만든 컴퓨터 ‘에니악’의 연산 속도를 훨씬 능가하는 ‘파일럿 모델’을 만들었다. 하지만 동성애자였던 튜링은 1951년 성문란 혐의로 고소당해 영국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정부는 그를 컴퓨터연구소 부소장직에서 해임시켰다. 범죄자에게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일을 맡길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그는 컴퓨터 개발에서 완전히 손을 뗐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다 1954년 6월 마흔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반 고흐만큼 비참하게 살다가 사후에 화려한 조명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고흐가 죽은지 100년이 지난 1990년 그가 그린 ‘가셰 박사의 초상’은 미국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에서 일본의 한 보험회사 그룹에 8250만달러(약 1000억원)에 낙찰되었다. 미술품 경매사상 최고가였다. 르누아르의 ‘물랭 드 라 갈레트’, 루벤스의 ‘유아 대학살’, 그리고 다시 고흐의 ‘수염없는 예술가의 초상’이 그 뒤를 이었다.

800점이 넘는 고흐 작품 가운데 살아있을 때 팔린 것은 단 한 점 뿐이었다. 그것도 친구가 가난한 고흐를 돕기 위해 의리 때문에 사준 것이었다. 400프랑을 받았는데 ‘가셰 박사의 초상’에 비하면 2만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고흐 작품 첫 전시회가 열

린 것은 그가 죽은지 2년 뒤인 1892년이었고, 1930년대부터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기 시작했는데 오늘날은 그의 전시회만큼 북적거리는 곳이 없을 정도다. 프랑스 아를에서는 고흐의 초상화가 그려진 티셔츠와 넥타이, 볼펜 등이 팔리고 있고 오베르 마을에 있는 고흐 묘지는 미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순례지가 되었다. 고흐는 한 번도 즐거운 표정의 그림을 그린 적이 없는데, 정신병을 앓은 것과 관련이 있다. 그는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셰 박사는 무척 괴팍한 사람이야. 나처럼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분명해”. ‘가셰 박사의 초상’은 일종의 자화상이었다.

트로츠키는 사실상 러시아혁명을 완수한 혁명가였다. 그는 천부적인 대중 선동가였고, 끊임없는 변혁의 전도사이자 집행자였으며, 혁명 과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였다. 그럼에도 레닌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야 했고, 스탈린의 벽에 부딪혀 무릎을 꿇었으며, 결국 스탈린의 복수로 목숨을 잃었다.

트로츠키는 1917년 9월 5000여명의 노동자로 이뤄진 적군(붉은 군대)을 창설해 11월 러시아 궁전을 점거함으로써 러시아혁명에 불을 당겼다. 궁전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무력충돌이 있었을 뿐 피를 거의 흘리지 않은 무혈혁명에 가까웠다. 그렇게 자신의 주도로 혁명을 성공시켰지만 권력을 쥐지는 못했다. 무력을 통한 정부 전복에 반대해 핀란드로 피신했던 레닌이 급히 귀국해 인민위원회 정부를 구성하고 혁명 주도권을 거머쥐었다. 죽 썰서 개 준 꼴이다.

역사가들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트로츠키는 불 같고 격정적이면서도 예측 가능한 사람이었다. 음모와 계략과는 거리가 멀었고, 레닌처럼 권력욕에 사로잡히지도 않았다. 1924년 레닌이 죽은 뒤 권력을 장악한 스탈린은 더 권력욕이 강한 데다 교활하고 잔인한 인간이었다. 트로츠키는 1929년 스탈린에 의해 터키로 추방된 뒤 프랑스, 노르웨이, 멕시코 등을 떠돌다가 1940년 8월 스탈린이 보낸 자객에 의해 암살당했다.

승자보다 뛰어난 재능을 갖추고 업적을 이뤘음에도 결과적으로 패배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들 중에는 자격은 충분하지만 권력에 빌붙거나 경쟁자의 뒤통수를 칠 정도로 비열하지 않았기에 패배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독일 언론인 슈나이더는 “패배자들은 대개 치열함과 처세술이 부족하고, 승리와 명예는 끈질기고 술수와 권력욕이 강한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패배자들이 죽어서나마 새롭게 조명받고 정당한 평가가 내려지는 것은 다행스럽다. 세상을 뒤덮을 만한 천재성을 갖춰음에도 세상을 잘못 만나 한 번의 반짝임도 없이 스러져간 이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각광받는 것은 늘 승리자다. 우리는 승자에게 환호하고, 승자의 전설을 만들며, 승자의 발자취를 배우려 한다. 그러나 승리자가 가득찬 세상보다 나쁜 것은 없다. 오로지 승리와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숨막힐 것인가. 그나마 삶을 견딜 만하게 만드는 것은 훌륭한 패배자들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위해 사랑을 나눈다

강화군, 릴레이 이웃사랑 성금 기탁 이어져



이웃돕기 기탁식 (강화옹진축협)



이웃돕기 성금기탁식(군내버스)



이웃돕기 기탁식 (강화시설관리공단)



강화군복지재단 기부(노인회)



불은면 박재금 이장,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전달



양사면 지역 사회 온정 나누기 이어져 (양사면노인회)



길상면 농가주부모임, 이웃돕기 물품 기부



강화군복지재단 기부(명예환경감시원)



강화군복지재단 기부(경인북부수협)



삼산면 감리교 연합회 기탁



하점면 천주교 하점성당, 사랑의 성금 기탁



불은면 어르신 생신잔치



길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산태 행사



선원면 이장단 성금 기탁



내가면 주민자치위원회 팔죽 나눔

환경부 29호 자연보호중앙회강화군지부 자연보호 행사



자연보호중앙회강화군지부 자연보호 행사

환경29호강화군지부 구자총지부장은 지난 12월 2일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소재 삼거천에서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삼거천에는 만물에서 시식하는 말조개가 다량 서식하고 있는데 내외국인들의 무분별한 채취로 인하여 버려진 말조개 껍질이 하천 바닥은 물론 농경지에 마구버려져 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농작물 재배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있어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참석자들은 자연보호의 목적은 자연을 가꾸고 정화함으로써 자연의 조화를 지속시키고, 지금까지 지녀온 살기좋은 환경을 보전하여 자연균형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의 기반이 되는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 보전하는데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기로 하였다.

화도면, 가가호호 방문 연말연시 이웃사랑 쌀국수 나눔 행사 진행



화도면, 연말연시 이웃사랑 쌀국수 나눔 행사 진행

화도면(면장 조영진)에서는 지난 15일, 이장단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화도면장이 함께 이웃사랑 쌀국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이장단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화도면장은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쌀국수를 전하며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애로 사항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성진 이장단장은 “동절기에는 주변 어려운 이웃들이 더욱 춥고 힘든 시기이기에 소외계층을 살피고자 관

내 기관단체장들과 가가호호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연숙 위원장도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복지증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조영진 면장은 “기관단체장분들이 바쁘신 와중에도 저소득 이웃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직접 발걸음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화도면도 기관단체장분들의 관심에 보답해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도면 중식당 '마니산 짜장' . 사랑과 정성 듬뿍 담은 짜장면 나눔



양도면 마니산짜장 짜장 나눔

강화군 양도면에 위치한 '마니산 짜장'(대표 조성옥)에서 지난 19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짜장면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이에 관내 취약계층 및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 국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약 1,700인분의 짜장면을 무료로 대접했다.

마니산 짜장은 이 같은 나눔 활동을 10년 넘게 진행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함을 전하고 있다.

이순규 양도면장은 “추운 날씨에도 맛있는 나눔을 실천해 주신 마니산 짜장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베풀어주신 귀한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서정진 기자

훈·훈·한·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신 독자께서는 강화투데이로 투고해주세요!

많은 분들께 따뜻함을 전달하여 함께 느끼고 함께 감동하며 숨은 곳에서 따뜻함을 전달하는 분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강화투데이 취재·광고 후원 ☎ 032.933.1080



강화군치매안심센터, '같이함께, 가치함께' 힐링프로그램 성료



강화군치매안심센터 힐링프로그램 진행



강화군치매안심센터 힐링프로그램 진행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치매 어르신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현재 강화군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진단을 받고 등록된 치매 어르신은 2,233명이며, 가족 및 보호자는 1,273명이다.

이번 힐링 프로그램은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했으며, 치매 어르신 돌봄에 지친 가족 및 보호자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기회 제공으로 정서적 안정감과 스트레스 완화, 돌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시행했다.

힐링 프로그램에는 총 133명이 참여했으며, 영화관람(장수상회·국제시장), 가족공예체험(카드지갑·키 홀더) 등을 진행했다. 시청각을 통한 감각자극과 소근육 운동 및 작품 완성을 통한 성취감 고취 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 어르신 가족들은 “어머니와 함께 오랜만에 문화생활을 하게 되어 좋았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고 싶다.”, “가족으로 작품을 만드는 게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완성하고 나니 자랑하고 싶다.”, “나만의 시간이 오랜만에 생겨서 즐거웠다” 등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어르신뿐만 아니라 가족 및 보호자의 정서적 안정감과 스트레스 완화, 돌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운영할 계획이다”라며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강화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화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 ▲치매 감별검사비 및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환자 쉼터 ▲치매가족지원 프로그램 ▲실종예방 지원 등 다양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화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 ▲치매 감별검사비 및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환자 쉼터 ▲치매가족지원 프로그램 ▲실종예방 지원 등 다양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클래식부터 아리랑까지...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강화북부문화센터, 문화예술 프로그램 성료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0일, 강화북부문화센터에서 진행된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모두 종료됐다고 전했다.

강화군 최북단에 조성된 강화북부문화센터는 강화 북부권역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2022년 9월에 개관했으며, 올해 개설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지난해보다 더 다채롭게 구성됐다.

먼저, 연중 운영된 정기 강좌인 ‘강화 소리 배우기’는 강화지역의 특색을 반영해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쉽게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클래식 5중주로 구성된 플레인 앙상블의 ‘로맨틱 아일랜드 콘서트’는 지휘자의 설명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돼 관객들이 클래식 음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지난 10월 열린 우리 민족의 노래 아리랑을 주제로 한 ‘한반도 아리랑’은 전국 각양각색의 아리랑을 관객이 함께 부르며 즐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12월 10일에는 2023년을 마무리하는 송년의 밤 ‘멋의 진수’도 개최됐다. 무형문화재 최경만 선생님을 비롯해 2023 스위스 제네바 문화교류 축

제 초청공연단으로 참가했던 사물놀이팀 ‘느닷’과 국립국악원 전·현직 국악의 명인들이 함께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했다.

이 외에도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한 동지 맞이 행사와 인화 장기 자랑은 강화북부문화센터의 올해 마지막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마무리됐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도 강화북부문화센터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주민들이 더 쉽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강화북부문화센터, 연말까지 풍성하게...문화예술 프로그램 성료



강화북부문화센터, 연말까지 풍성하게...문화예술 프로그램 성료

**2024
신년 자선 음악회**

**강화를 사랑하는
드러머 클럽**

2024. 1. 13 (토) PM 1시 30분
강화문예회관

주최 | 강화를 사랑하는 드러머 클럽
후원 | 강화군, 삼성인쇄광고기획, 셀라드림, 드림창고

* 현장에서 경품추첨도 진행됩니다. * 수익금 전액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됩니다!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군 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라 강화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제작되었습니다